

울진 지역에서는 아직 발굴 조사된 유적은 없지만, 북면 주인리 석수동³⁷에서 유물이 채집되어 보고되었다. 이 유적은 기원전 12만 년~기원전 4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편년되어 늦어도 이 시점에는 울진 지역에 구석기인들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신석기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한반도에도 새로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서 움집을 짓거나, 동굴, 바위그늘에서 살며 소규모 마을을 이루어 정착 생활을 하였다. 살림살이는 수렵과 어로, 채집활동 외에도 원시적인 농경과 가축사육이 시작되었다. 한반도 내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와 더불어 멀리 중국 동북 지역, 러시아 연해주, 일본 열도 등과도 교류하였다.

정착 생활의 보편화로 마을이 형성되면서 큰 규모의 움집이 등장하고, 내부에는 다양한 저장시설과 음식의 조리과 난방을 위한 노지가 설치되었다. 또한 토기와 마제석기(磨製石器)가 사용되며 그물과 직물을 짜는 등의 도구발달이 현저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시적인 분업형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의례 행위도 발전하여 죽은 사람을 묻는 매장풍습과 자연숭배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신석기인들의 흔적은 주거지, 동굴, 바위그늘, 무덤, 조개더미, 토기가마터 등의 형태로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처음으로 등장하는 유물은 다양한 문양을 새긴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로 아외가마에서 구워졌으며, 곡식의 저장과 음식의 조리, 용관 등으로 사용되었다. 수렵과 어로를 비롯해 벌목, 농경, 가공에는 석재도구가 많이 이용되었는데, 석창·석촉·작살·석부·보습·갈판·갈돌 등 다양하며 일부분을 갈아 만든 것이 많다. 그 외에 결합식낚시·송곳·바늘 등의 골각기와 토제인형·조개팔찌·귀고리·목걸이 등의 장신구가 있다.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의 고산리식 토기를 약 1만 년(BC 8,000) 전으로 보고 있어 이 시점을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 토기는 고산리·삼양동·제주삼화지구·강정동유적 등 모두 제주도에 국한되며 내륙에서는 아직 발견된 바 없다.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빗살무늬토기는 독특한 토기 형태와 문양을 기준으로 전기 후반부터 서북 지역, 동북 지역, 중서부 지역, 남부 지역, 동해안 지역 등 5개 문화권으로 구분되며, 제주도의 경우, 한반도 내륙 지역과 시간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많아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시

37. 홍영호·김상태, 2012, 「경북 동해안 지역의 새로운 구석기 유적」『한국구석기학보』3, 한국구석기학회

기에는 관계없이 토기저부의 형태적 특징만을 고려하여 크게 서북 지역·동북 지역의 뇌문토기를 표지로 하는 평저토기문화권과 중서부 지역·남부 지역·동해안 지역의 첨저·원저토기문화권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경북·대구 지역의 신석기 문화는 동해안과 남부 지역 문화권에 포함되는데, 이른 시기의 취락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점차 내륙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보인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울진 죽변리유적, 울진 후포리유적, 김천 송죽리유적, 김천 지좌리유적, 경주 봉길리유적, 대구 유천동유적 등이 있는데, 초기~말기에 해당하는 유적이다.

울진 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초기에서 후기까지의 유적이 확인되는데, 죽변리유적[초기~중기], 후포리유적[초기], 오산리유적[중기~후기] 등 유적의 수량은 적지만 지역의 독창적인 색채를 보여주는 대표 유적들로 잘 알려져 있다.

울진 죽변리유적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초기의 대표적인 정주취락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죽변리에 처음 마을이 만들어졌던 시점은 기원전 5,700년 전이며, 중기인 기원전 3,500년 전까지 이어졌다. 죽변리 신석인들은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강원도 지역부터 남해안까지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며 죽변리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것으로 보인다.

죽변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죽변리 고유의 것과 국내외 교류를 보여주는 것 등 매우 다양하다. 토기에 있어 채색된 옹형토기는 죽변리만의 독창성을 보여 학계에서는 죽변리식 토기라 별칭되며, 압날점열문토기, 두립문토기, 용기문토기, 압날문토기 등은 동해안지역 초기문화권에서 출토되는 토기들과 연결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토기제작받침대의 실물들이 다수 확인되어 신석기시대 토기제작 기술연구에 바탕이 되고 있다.

한편, 해양 어로방법을 잘 보여주는 목선과 노, 작살, 결합식낚시축부, 석제추, 석제 닻 등을 비롯하여 돌창, 사냥돌, 돌칼, 돌톱, 팽이, 돌보습, 고무래형석기, 갈돌과 갈판, 석부, 석착 등도 출토되었다. 석기 중에는 지역간 교류를 잘 보여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 내 교류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오산리형 석추와 결합식낚시바늘이 있는데, 동해안의 고성 문암리 유적과 양양 오산리유적, 남해안의 부산 범방유적, 울산 세죽유적의 출토품과 흡사하다. 남해안을 통한 일본과의 교류는 일본 서북구주산 사누카이트제 작살과 가마사키형 굽개의 출토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울진 후포리유적은 울진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이며,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초기의 가장 큰 집단분묘이다. 매장공간에서는 최소 40인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골과 180여 점에 이르는 장대형 마제석부, 옥제 소형석부와 석제장신구, 관옥, 소형석봉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장대형석부와 옥제장신구 등은 함경북도 회령 연대봉유적, 중성 삼상봉유적 등 주로 북부 동해안지역의 유적들과 유사성을 보여 이 지역에서 전파된 초기의 분묘로 보고 있다. 그 연원에 대해서는 시베리아지방의 수렵어로문화 집단의 이주 가능성과 중국 동북지역의 흥륭와(興隆窪) 문화의 영향이라는 설 등이 있다.